

Inflection Point : Towards New Prosperity

변곡점을 넘어, 새로운 번영을 향해



THE 18th WORLD KNOWLEDGE FORUM

제18회 세계지식포럼

2017. 10. 17(화)~19(목) 장충 · 신라호텔

세계지식포럼 사무국

(우) 0462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5층

전화 : 02-2000-2411~5 팩스 : 02-2000-2419

일반문의 : knowledge@mk.co.kr

등록문의 : wkf_reg@mk.co.kr

The World Knowledge Forum Secretariat

5FL, Maekyung Media Center Bldg, 190, Toegye-ro,
Jung-gu, Seoul, Korea 04627

Tel : +82-2-2000-2411~5 Fax : +82-2-2000-2419

E-mail : knowledge@mk.co.kr



Message from the Chairman

세계지식포럼이 올해로 18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지식을 향한 많은 분들의 열정과 지원 덕분에 세계지식포럼은 명실상부 글로벌 지식의 향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최고 글로벌포럼으로 우뚝 선 세계지식포럼은 매년 새로운 도전으로 포럼의 품격을 높여오며 국내 글로벌포럼의 역사를 이끄는 선구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지식포럼은 매년 전 세계의 화두와 트렌드를 반영한 글로벌 포럼의 표준을 만들어내며 명품포럼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매년 10월 세계지식포럼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고의 연사와 주제로 시대를 앞서 내다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라호텔과 함께 장충체육관을 지식축제의 장으로 재탄생시킨 세계지식포럼은 올해도 지금껏 그 어떤 포럼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지식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올해 지구촌은 역사상 매우 중요한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처해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 4차 산업혁명은 정치·경제·사회 등 인류의 모든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도 인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곡점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대에는 창조적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는 많은 분야의 파워엘리트와 글로벌 석학들이 모여 변곡점을 맞은 세계가 성장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길을 찾아가는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최고의 지식과 인사이트로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세계지식포럼 집행위원장
장 대 환

Jae-wan Chang

등록절차안내

※ 제18회 세계지식포럼은 온라인 참가신청만 가능합니다.
www.wkforum.org
※ 등록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E-mail로 발송해드립니다.

1. 온라인 참가신청 절차



2. 참가비 안내

구분	조기등록 (~ 8월 31일)	일반등록 (9월 1일 ~ 9월 29일)
일반	₩ 2,970,000	₩ 3,300,000
할인(50%)		대학생, 장애인(1~3급) ₩1,650,000

제18회 세계지식포럼

기간 : 2017년 10월 17일(화) ~ 19일(목)
장소 : 장충 · 신라호텔

- ▶ 조기등록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 신청은 하셨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등록으로 전환되면서 할인혜택은 자동취소됩니다.
- ▶ 일반등록 마감일은 9월 29일까지로, 일반등록시에도 마감일까지 입금완료하셔야 최종등록으로 인정됩니다.
- ▶ 참가자에게는 세계지식포럼 자료집, 종식(3회), 만찬(1회)이 제공됩니다.
- ▶ 대학생 할인은 전업 대학생에 한합니다. (등록시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 ▶ 장애인 할인은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보내주시는 분에 한합니다.
- ▶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9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취소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 참가비에 숙박요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 모든 세션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 세계지식포럼 자료는 포럼 기간에 현장에서만 제공됩니다.
- ▶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지식포럼 등록사무국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5층
Tel : 02-2000-2620-3 Fax : 02-2000-2626 E-mail : wkf_reg@mk.co.kr

THE 18th
WORLD
KNOWLEDGE
FORUM



THE 17th WORLD KNOWLEDGE FORUM

Preparing for GREAT INSTAURATION

THE 18th WORLD KNOWLEDGE FORUM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시작된 세계지식포럼은 창조적 지식 국가 대전환을 목표로 2년여 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2000년 10월 출범했습니다. 이후 세계지식포럼은 지식 공유를 통한 지식격차 해소, 균형 잡힌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해왔습니다.

'지식으로 새 천년 새 틀을 짜다'라는 주제로 첫 포럼이 열린 이래 지금까지 총 3,600여명의 글로벌 연사들과 3만 5,000여명을 웃도는 청중이 참여해 세계지식포럼을 명실상부한 지구촌 최대 지식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와 모리 요시토 전 일본 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등 국가 정상들, 김용 세계은행 총재, 도널드 존스톤 전 OECD 사무총장, 주민 전 IMF 부총재, 티머시 가이트너 전 미국 재무장관, 리언 페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 레르양민 ASEAN 사무총장 등 글로벌 리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마이클 델 델테크놀로지 회장,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 피터 보저 전 로열더치셀 CEO,

네이션 블레차르치크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 등 기업인, 래리 서머스, 폴 크루그먼, 폴 케네디, 누리엘 루비니, 마이클 포터, 프란시스 후쿠야마, 앨런 그린스펀, 조셉 스티글리츠, 그레고리 맨큐, 후안강, 하마다 고이치 등 석학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세계지식포럼에는 200여명의 연사와 3,500여명의 청중이 함께 모여 '변곡점을 넘어, 새로운 번영을 향해(Inflexion Point: Towards New Prosperity)'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프랑수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등 글로벌 리더를 비롯해 201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올리버 하트 하버드대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해 변곡점 맞은 세계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야친 중국 바이두 총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역대 세계지식포럼 주제

The 1st World Knowledge Forum
Shaping the New Millennium with Knowledge

The 2nd World Knowledge Forum
Drawing the Roadmap for Knowledge Economy and Global Prosperity

The 3rd World Knowledge Forum
Knowledge in a World of Risk: A Compass Towards New Prosperity

The 4th World Knowledge Forum
Creating a New World Order and Economy

The 5th World Knowledge Forum
Partnership for Renewed Growth

The 6th World Knowledge Forum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Foundation for the New Era

The 7th World Knowledge Forum
Creative Economy

The 8th World Knowledge Forum
Wealth Creation and Asia

The 9th World Knowledge Forum
Collabonomics & Greater Asia

The 10th World Knowledge Forum
One Asia, New Economic Order & Recovery

The 11th World Knowledge Forum
One Asia Momentum, G20 Leadership & Creatinnovation

The 12th World Knowledge Forum
The New Economic Crisis: Reforming Global Leadership & Asia's Challenge

The 13th World Knowledge Forum
**The Great Breakthrough
New Solutions for Global Crisis:
Leadership, Integrity, Creativity and Happiness**

The 14th World Knowledge Forum
One Asia Metamorphosis

The 15th World Knowledge Forum
Invigorating the Global Economy

The 16th World Knowledge Forum
Mapping the Zeitgeist

The 17th World Knowledge Forum
Aiming for Great Instauration

변곡점을 넘어, 새로운 번영을 향해

인류의 역사는 여러 차례 변곡점을 맞았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사물을 추상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 인지 혁명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한 변곡점이었다. 수렵 생활을 하던 인간들이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재배해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든 농업혁명도 인류 역사를 바꾼 중요한 변곡점이다. 다음 변곡점은 18세기에 진행된 1차 산업혁명이었다. 산업혁명을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시장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사회 질서를 확립했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렸지만 개인과 국가 간의 양극화라는 비용도 치렀다.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인류 삶의 질은 한 단계씩 높아졌지만 변곡점은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갈랐다. 변곡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국가와 개인은 성공한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퇴보의 길을 걸었다.

2017년, 인류는 또 다른 변곡점에 직면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발달 혁신이 불어닥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4차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구분될 만큼 이번 혁명은 새로운 변곡점이 되고 있다.

기존 기술을 파괴하면서 등장한 AI는 인간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4차 산업혁명이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가져올 변화는 상상을 초월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업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이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것은 혜택이라기보다 재앙에 가까울 것이다.

중요한 순간들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인류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기 나라의 이익만 추구하는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소수집단은 무분별한 테러로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세계를 위협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비하는 개인과 기업, 정부는 많지 않다.

세상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발만 잘못 디더라도 끝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변곡점을 맞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긴 시간동안 패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제18회 세계지식포럼은 변곡점을 맞은 세계가 보다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치·경제·과학·기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세상을 논의하는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



**Inflection Point :
Towards New Prosperity**

THE 18th WORLD KNOWLEDGE FORUM

1. Inflection Point : Towards New Prosperity
2. Searching for New Global Leadership
3. Shifting Paradigm in Global Economy
4. Discovering 4IR Hypostasis
5. Investment Strategy under New Environment
6. Seeking Ways to One Asia
7. Collective Intelligence for New Life

THE 17th
WORLD
KNOWLEDGE
FORUM

GREAT
INSTAU-
RATION

NEW
LEADERSHIP
IN THE
MAELSTROM

CATALYZING
GROWTH
METABOLISM

WINNING IN
TECHNOLOGICAL
SINGULARITIES

GLOBAL
INVESTMENT
& FINANCE

INSIDE
CHINA
& ONE ASIA

MOONSHOT
THINKING

Neo-Isolationism



변곡점을 넘어,
새로운 번영을 향해
**Inflection
Point :
Towards
New
Prosperity**

가속의 시대다. 변화는 변화를 낳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탄생한다. 새로운 기술은 과거의 기술을 파괴하면서 발전하고 다시 새로운 기술에 의해 파괴당한다. 기술뿐만이 아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는 제각각이다. 프랑스에서는 신생 정당이 기존 정당을 파괴하면서 다수당을 장악했다. 미국은 '미국 제일주의'를 다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를 새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한국은 2016년 촛불혁명을 시작으로 기존의 정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경제도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의 실업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시장경제에 입각한 자원배분 방식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갈수록 확대되는 빈부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정체된 성장 동력을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도 제기된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어디까지가 인간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기계의 영역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제2의 르네상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세계지식포럼은 올해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는 변곡점(Inflection Point)으로 규정했다. 변곡점에서 승자가 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이 모여 최고의 방안을 제시한다.



힐러리 클린턴 Hillary Rodham Clinton _ 미국 정치인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 변호사, 퍼스트레이디, 상원의원, 국무장관, 대통령 후보 등으로 4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 퍼스트레이디로서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여성인권, 민주주의, 시민사회에 대해 주창해왔다. 1995년 베이징을 방문해서 "인권이 곧 여성의 권리고,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다"라는 그의 발언은 여성 인권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의 이력에는 처음이라는 단어가 붙어 다닌다. 2000년에는 미국 역사상 퍼스트레이디 출신중 처음으로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2007년에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장관에 선임됐다. 2016년에는 여성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선거 과정에서 6600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미국 웨슬리 대학과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프랑수와 올랑드 François Hollande _ 전 프랑스 대통령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 제24대 프랑스 사회당 후보로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프랑수와 미테랑 이후 15년 만에 사회당 소속 대통령이 됐다. 독일 메르켈 총리와 호흡을 잘 맞춰 유럽을 이끌었다. 유로존 위기의 해법에 대해서도 긴축보다 경기부양책과 성장촉진 정책을 제시했다. 부유층에 대한 세율 인상 정책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프랑스 경제가 어려워지자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경영대학, 파리정치대학, 국립행정학교 등을 졸업했다. 졸업 후 파리정치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다. 1979년 사회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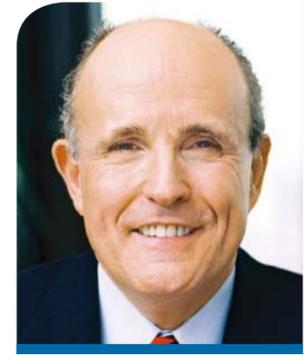


반기문 Ban Ki-moon _ 전 UN 사무총장

한국인 최초로 UN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UN 사무총장이 되기 전에는 한국에서 제 7대 외교통상부 장관까지 역임한 정통 외교관이다. 외무부 미주국장, 외교정책실장,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외교통상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제 7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2006년 10월에 유엔 총회에서 제 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돼 한차례의 연임을 거쳐 지난 2016년까지 재직했다. 2013년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32위에 선정됐다. 2016년 미국 외교잡지 '포린폴리시'는 파리 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공로로 세계의 사상가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한 바 있다.



루디 줄리아니 Rudy Giuliani _ 전 뉴욕 시장



911 테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의 대표적인 리더로 부상한 미국 정치인이다. 특히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인 가운데 테러 수습을 위해 헌신하면서 전 세계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2001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으며 2002년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기사작위를 수여받았다. 뉴욕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후 검사로 활약했다. 검사시절 마피아 조직을 소탕한 것은 유명하다. 1989년 뉴욕시장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후 1993년에 다시 도전해 당선됐다. 시장 취임 초기 뉴욕 범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범죄율을 크게 낮췄다. 2008년에는 공화당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후에 후보를 사퇴하고 존 매케인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다.

장야친 Zhang Ya-Qin _ 바이두 총재



바이두의 A부터 Z까지 바꿔 나가고 있는 미래사업 담당 총재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구개발(R&D)을 총괄하던 2014년 9월 리엔홍 바이두 회장이 삼고초려해 총재로 영입했다. 리 회장이 바이두의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한다면 장 총재는 글로벌과 신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장 총재는 마이크로소프트 차이나 대표를 역임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연구소의 공동창업자이기도 하다. 장 총재는 12세에 중국과학기술대에 입학한 수재다. 23세에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불과 31세의 나이에 국제전기전자공학학회 100년 역사상 최연소 펠로우 선정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60개 이상의 미국 특허가 있으며 500편 이상의 논문을 썼다.

글로벌 리더십의 재정립 Searching for New Global Leadership

세계 정치 지형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부터가 심상찮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접점은 한반도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 핵 문제도 세계를 정치적인 균열로 몰고 가는 중요한 이슈다. 북핵 문제에 미국·중국은 물론 한국·일본·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정치의 핵으로 부각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유럽의 정치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다. 하나의 유럽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모색될지 주목된다. 세계의 정치 질서를 관통할 수 있는 리더십은 실종되면서 국제정치는 다극화된 갈등 구조를 표출시키고 있다. 난민과 이민 등의 이슈가 부각되는 것도 혼란스런 정치지형 및 리더십 실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열리는 세계지식포럼에서 글로벌 정치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G2 문제에 대한 해법이 모색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끝장 토론도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미국 정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도 이뤄진다.



엔리코 레타 Enrico Letta _ 전 이탈리아 총리

총리까지 역임한 대표적인 이탈리아의 정치인이다. 2013년 4월 이탈리아 제1당인 민주당 대표 피에르 루이지 베르사니가 사임하자 당시 조르조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이 민주당 부대표였던 엔리코 레타를 새 총리로 지명했다. 이후 민주당과 자유국민당, 중도연합이 뭉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2013년 4월 28일 이탈리아의 총리에 취임하여 2014년 2월까지 재임했다. 총리로 부임하기 전에는 산업, 상무, 통상 부문 장관으로 재직했다. 이탈리아 피사 대학에서 국제법과 유럽연합 법을 전공해 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 국제관계대학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칼 빌트 Carl Bildt _ 전 스웨덴 총리

1991년 61년 만에 스웨덴 보수정권이 배출해낸 총리가 되어 화제가 된 스웨덴의 정치인이다.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유럽연합(EU)의 보스니아 특사로 일하며 구 유고 내전의 정리를 맡았고 이후 국제연합(UN)특사로 평화 협상에 참여하며 분쟁을 중재했다. 이로 인해 '발칸의 중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의 경험은 보스니아 내전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낸 책 <평화를 위한 여정>에서 볼 수 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스웨덴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위원회를 출범시켜 의장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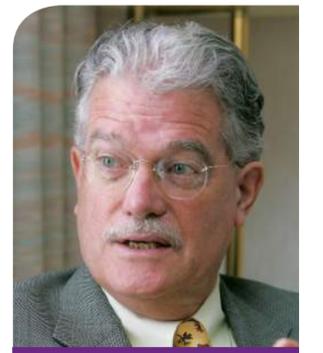


기 소르망 Guy Sorman _ 전 파리정치대학교 교수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다. 최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탔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강의로 유명하다. 파리 대학을 비롯해 미국·중국·아르헨티나·러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강의했다. 특히 세계화와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 등을 포함해 세계화 주제에 대해 30여 권의 저서가 있을 만큼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저서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됐다.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스페인·브라질·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신문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는 경제전략, 문화, 인권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 자문도 하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 Bruce Cumings _ 시카고대 석좌교수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한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다. 1960년대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찾은 이후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현대사 연구에 몰두했다. 특히 1981년에 펴낸 <한국전쟁의 기원>은 한국전쟁을 다룬 대표적인 저서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그는 38선 확정의 책임은 물론이고 단독정부 수립에 의한 남북 분단 고착화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해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구소련의 붕괴로 1990년대 기밀문서가 공개된 뒤 한국 전쟁은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고 단언했다. 2007년 제1회 후광 김대중 학술상을 받았고 현재 시카고대 역사학과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Shifting Paradigm in Global Economy

제2차 대전 이후 글로벌 화두였던 세계화(Globalization)가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을 넓혀 효율성을 높이고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한다는 것이 세계화의 주된 논리였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이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볼 것으로 예상됐고 일부는 현실화됐다. 2017년 들어서는 상황이 급반전됐다. 1950년대 이후 세계화를 이끌었던 미국에서부터 역풍이 몰아닥쳤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은 경제적인 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이탈을 결정한 이후 유럽 내에서도 보호무역의 기운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이 커질 조짐도 보인다. 미국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정책 금리를 올리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신흥국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의 대규모 이탈을 염려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큰 변화도 예상된다. 1차 산업혁명 이후 진행됐던 세계 각국 간의 대규모 격차확대(Great Divergence)가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기에 세계 경제 양대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많은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18회 세계지식포럼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에 대한 진단이 이뤄진다.

올리버 하트 Oliver Hart _ 201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016년 벤트 홀름스트롬 MIT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실생활의 계약과 제도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인 계약이론(Contract Theory)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용주와 근로자, 회사와 고객 등이 상호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계약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마련했다. 계약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그는 또 기업구조 및 기업금융, 법 경제학의 전문가로도 유명하다. 영국 킹스 칼리지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법경제학회 회장, 미국경제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로버트 바로 Robert Barro _ 하버드대 교수

로버트 루카스, 토마스 사전트와 함께 신고전주의 거시경제학의 창시자로 꼽힌다. 87개국의 경제학자들이 협업해 만든 경제학 전문 웹 사이트인 'RePEc(Research Papers in Economics)'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5위로 선정됐다. 1974년에 집필한 논문 '정부채권은 순자산인가?'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현재 이 논문은 거시경제학 논문 중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 하나다. 매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후보로 거론된다. 웨스턴경제학회 회장과 전미경제학회 부회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태원 Chey Tae-won _ SK 회장

반도체, 석유화학, 이동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SK그룹을 이끌고 있다. SK그룹은 자산 기준 한국에서 3위 그룹이다. 그는 고려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1년 SK의 전신인 ㈜선경 경영기획실에서 시작했으며 1998년부터 SK그룹을 이끄는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보아오포럼 이사, UN 글로벌컴팩트 이사 등을 맡아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활약했으며 세계경제포럼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안에 사회적 기업의 경제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사회적 기업 10만 개 육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파티 비롤 Fatih Birol _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터키 출신으로 국제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전문가이자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다. 2009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에너지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7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IEA 에너지 비즈니스 위원회의 창립자이자 의장이며 세계경제포럼 에너지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 국제연합(UN) 사무총장 직속의 범세계적인 지속 가능 에너지를 위한 고위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독일, 이탈리아 등 7개국에서 훈장을 받았다. 2016년 2월 한 강연에서 4년 내 국제유가가 현재의 2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바 화제가 되기도 했다.



로버트 쿵먼 Robert Koopman _ WTO 수석이코노미스트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이면서 경제통계분과 담당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경제통계분과는 각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무역 및 무역 정책의 역할에 대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WTO에 합류하기 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을 역임했다. 여기서는 무역위원회의 무역정책 분석과 미국 대통령, 미국무역대표부(USTR), 미국 의회 등에 협상 전략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덤핑, 상계 관세, 지적재산권, 셰이프가드, 지적재산권 분쟁 등과 관련한 조사 및 평가 업무에 정통하다. 국제적 관세 시스템과 무역 전략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많은 업적을 쌓았다. 현재는 스위스 제네바 대학원에서 방문 교수도 겸직하고 있다.



샤를르 에두아르 부에 Charles-Edouard Bouée _ 롤랜드버거 회장

세계적인 전략 컨설팅 기업 롤랜드버거의 글로벌 경영위원회 CEO이다. 대표적인 인수합병 전문가로 2009년부터 아시아 대기업을 상대로 성장 전략 수립 및 인수합병 자문 등을 담당했다.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해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연평균 성장률을 이유로 소비재 비즈니스 기업들에게 중국 투자를 추천하기도 했다. 여러 경영 관련 베스트셀러들을 집필했고 대표작으로 2013년 작 <가벼운 발자국> 경영: 변화하는 시대 속의 리더십(Light Footprint Management)>이 있다. 2010년과 2012년에 상하이 금융 발전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상하이 정부로부터 매그놀리아 어워드를 두 차례 수상했다. 현재 블룸버그, CNBC 등 금융 관련 미디어에서 초청 앰버리스트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글로벌 대표로 재직 중이다.



4차 산업혁명 본질에 대한 조명

Discovering 4IR Hypostasis

4차 산업혁명(4I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은 이미 현실이 됐다. 기술 변혁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여서 이제 얼마나 변화를 잘 파악하는지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취약한 글로벌 경제 성장세에 시동을 걸어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AI뿐 아니다. 이른바 ABC(AI, Big Data, Cloud)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씨앗은 전 세계 산업 생태계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기술 변화가 단순히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 물결은 기술 발전의 한계는 무엇이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점까지 다시 정의해야 할 정도의 고민을 던지고 있다. 제18회 세계지식포럼에서는 이런 고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각 기술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들은 물론 자연 과학자, 역사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물결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다. 더 나아가 유인 달 탐사선 사업가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선구자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밑그림을 제시한다.

러셀 스톱스 Russell Stokes _ GE파워 최고경영자(CEO)

러셀 스톱스는 150개 이상 국가에 걸쳐 전 세계 전기공급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GE파워의 최고경영자(CEO)다. GE파워는 매출 기준, GE의 최대 사업부이다. GE파워의 연 매출은 400억 달러를 상회한다. GE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러셀 스톱스는 GE에너지커넥션, GE트랜스포메이션에서 최고경영자로 일했다. 2017년 GE가 GE에너지커넥션과 GE파워를 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의 최고경영자로 발탁됐다. 그는 GE트랜스포메이션, GE항공, GE조명 등에서 재무, 사업 운영, 서비스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GE에 입사하기 전에는 PC 생산업체에서 판매를 담당하며 사회 경력을 쌓았다. 러셀 스톱스는 애틀란타상공회의소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클리브랜드주립대에서 재무를 전공했으며, GE의 재무관리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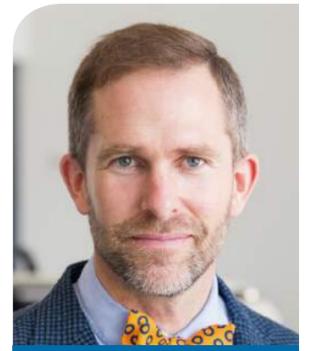
제프리 갯식 Jeffrey Godsick _ 소니픽처스 수석부사장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SPE)에서 브랜드관리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마케팅, 브랜드 전문가다. 휴먼지, 스파이더맨, 스머프 등 소니픽처스가 갖고 있는 콘텐츠 관련 국제협력과 브랜드 관리와 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소니픽처스가 갖고 있는 영화가 스크린을 넘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니의 다른 사업부문과 협력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다양한 미디어들과 협력도 추구하고 있다. 갯식 수석부사장은 1995년 20세기 폭스사에 입사해 소비자 부문 사장까지 역임한 뒤 2016년 소니픽처스에 영입됐다. 폭스사 입사 전에는 컬럼비아픽처스에서 고스트버스터즈 등의 영화 제작에 관여했다.



존 로저스 Jr. John B. Rogers _ 로컬모터스 CEO 겸 공동창업자

3D 프린팅으로 자동차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컬모터스를 설립했으며 CEO를 맡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동차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개척해 나가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경영자다. 2014년 6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개최한 '백악관 메이커 페어 2014(White House Maker Fair)'에서 로컬모터스를 혁신의 상징이라고 극찬했다. 오바마는 로컬모터스가 포드의 뒤를 이을 혁신기업이라고 언급했다. 프린스턴대 우드로윌슨 공공 및 국제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받았다. 미 해병대에서 7년간 복무했으며 맥킨지앤컴퍼니에서 컨설턴트로 일했고 중국의 의료기기 스타트업에서도 일했다.



데이비드 헨슨 David Hanson _ 헨슨로보틱스 CEO 겸 창업자

데이비드 헨슨 헨슨로보틱스 창업자는 고무와 흡사한 실리콘 계통의 물질인 '프러버(Frubber)'로 인간의 형상을 한 로봇을 만들었다. 이 로봇은 피부까지 사람과 비슷하며 스마트폰 앱으로 작동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람과 눈맞춤이 가능할 정도로 인지 기능이 향상된 로봇을 개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사람과 일부 대화를 한다. 헨슨은 월트 디즈니 이미지니어링에서 조각가, 기술 컨설턴트로 활약했다. 헨슨은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에서 공부했으며, 댈러스에 있는 텍사스대에서 상호작용 예술과 엔지니어링 등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두르가 프라사드 말라디 Durga Prasad Malladi _ 퀄컴 수석부사장

1998년 퀄컴에 엔지니어로 입사한 두르가 프라사드 말라디 퀄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수석부사장은 지난 18여 년 동안 3G, 4G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퀄컴 리서치의 프로젝트 엔지니어로서 4G LTE-A 설계 등을 총괄했다. 현재 퀄컴 리서치에서 진행 중인 무선 광대역 통신, 주파수 공유 접속, 사물인터넷(IoT) 등을 아우르는 4G 및 5G 무선 통신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동시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문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인도 마드라스 공과대학 기술 학사 및 미국 UCLA 공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회원이자 238개에 달하는 미국 특허를 출원했다.





후웨이웨이 Hu Weiwei _ 모바이크 창업자 겸 총재

중국 공유경제 아이콘으로 부상한 자전거 공유기업 '모바이크(摩拜·Mobike)'를 창업했다. 2015년 1월 창업한 모바이크는 불과 2년 만에 기업가치가 2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국 100개 도시를 포함해 전 세계 130개 도시에서 500만 대 이상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인의 발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만 하루 이용자가 2,000만 명에 달한다. 텐센트 등이 이 회사의 잠재력에 주목해 9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후 총재는 성공한 기업가로 중국 젊은 층에서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 신징바오 등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공유경제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모바이크를 창업했다.



더크 알본 Dirk Ahlborn _ 하이퍼루프 트랜스포테이션 테크놀로지 (HTT) CEO

진공상태에 가까운 튜브형 운송관에 차량이 시속 1,200km의 속도로 운행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사업가다. 전기모터로 파드(pod:차량)를 급가속시킨 뒤 공기저항이 없는 튜브에서 음속과 비슷한 속도를 내는 기술이다. 더크 알본 HTT CEO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수 시간 내 화물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거주지가 다변화될 수 있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꿈의 기술인 HTT가 5~10년 내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스타트업 펀딩을 지원하는 점프스타터라는 회사의 CEO도 맡고 있다.



신재원 Shin Jaiwon _ NASA 항공분야 연구개발 최고책임자

세계 최고 우주항공연구기관인 NASA에서 1989년부터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해왔다. NASA 항공부문 미국 공무원 중 최고위직 행정가로 일하고 있다. 신재원 박사가 최근 수립한 NASA의 장기전략계획은 미국 정부와 항공업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전 세계 민간항공 연구기관들의 표준이 되고 있다. 신 박사는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유학 길에 올라 캘리포니아주립대(롱비치) 기계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버지니아공대에서 유체역학으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땀다. 신 박사는 매년 5% 미만의 미국 연방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수여되는 최우수 공직자 대통령상을 2008년, 2016년 2회에 걸쳐 수상했다.



로버트 리차즈 Robert Richards _ 문익스프레스 CEO 겸 창업자

우주 사업가이자 미래학자다.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 의한 최초의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는 문익스프레스를 창업했다. 문익스프레스는 2016년 8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달 탐사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문익스프레스는 당초 로봇을 이용한 과학 탐사에 목표를 두었으나 상업적인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로버트 리차즈는 캐나다에 있는 라이어슨대에서 우주공학과 산업공학을 전공했으며 토론토대에서는 천문학을 전공했다. 미국 코넬대에서는 우주과학을 전공했다. 지구상에서 인류가 지속가능한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주에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칼 프레이 Carl Benedikt Frey _ 옥스퍼드대 마틴스쿨 교수

옥스퍼드대학교 마틴스쿨에서 기술 발전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학자로 유명하다. 우버 같은 공유경제 기업이 전통적인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설과 달리 오히려 산업 전체를 발전시켜 일자리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독특한 분석을 내놓는 등 다양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칼 프레이 교수는 UN 산하기관, OECD 등 국제기구와 딜로이트, PwC 등에서 외부 컨설턴트로도 활동했다. 스웨덴 출신으로 베를린 공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막스프랑크 지식재산권, 경쟁법, 세법, 공공투자 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팀 스미스 Tim Smith _ 머스크그룹 북아시아 대표 겸 머스크차이나 회장

세계 최대 해운회사인 덴마크 머스크그룹에서 북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대표 겸 머스크차이나 회장을 맡고 있다. 영국 태생인 스미스 회장은 옥스퍼드대에서 지리학을 전공한 뒤 컨테이너 사업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 16년을 홍콩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을 아시아 관련 업무에서 경력을 쌓았다. P&O컨테이너, P&O네들로이드 등에서 근무했으며 머스크그룹이 P&O네들로이드를 2005년 인수함에 따라 머스크그룹의 일원이 됐다. 스미스 회장이 맡고 있는 북아시아 지역은 머스크라인에서 35% 비중을 차지하며,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



이대열 Lee Daeyeol _ 에일대 신경생물학과 석좌교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뇌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과학자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했다. 2017년 4월 첫 저서인 <지능의 탄생>을 펴냈다. 이 책은 최신 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뇌의 구조와 지능의 본질에 대해서 다룬 책이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이 변화시킬 인류의 미래를 낙관하는 근거로 '생명체의 지능이 가진 근본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사이언스, 네이처 등의 저널에 9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신경과학 저널'의 편집자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을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능과 뇌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투자전략 Investment Strategy under New Environment

불확실성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과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투자환경에 직면했다. 세계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연결되면서 한 지역의 변화는 빠른 속도로 다른 지역의 변화를 일으킨다. 지역뿐만이 아니다. 한 업종의 변화는 다른 업종의 변화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변화는 채권과 파생상품 시장의 변화로 이어진다. 정보의 유통 속도도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은 이제는 실시간으로 투자자들에게 전파된다. 화폐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만 공식적인 화폐로 인정됐지만 요즘에는 비트코인 등 2,3차 파생 화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화폐관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개인들은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올리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투자의 수단도 과거 금융상품 일변도에서 이제는 부동산과 실물 등 각종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대체투자에 개인들도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세계지식포럼은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 방법을 모색한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개인, 기관, 국가 등 돈을 모으고 굴리는 모든 경제 주체들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로버트 머튼 Robert Merton _ MIT대 교수

1997년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경제 모형을 발전시킨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또 개인들이 전 생애에 걸친 금융자산관리, 다양한 시점 간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자산가격 결정, 담보,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영역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다. 이와 함께 금융 제도에 대한 규제와 금융혁신, 거시적인 금융위험 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컬럼비아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응용수학 석사, MIT대 경제학 박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 교수를 거쳐 MIT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재무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혼다 게이코 Honda Keiko _ 세계은행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대표

혼다 게이코는 해외에서 투자사업을 벌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대표를 맡고 있다. 혼다 대표는 극단적 가난으로부터 탈피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세계은행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혼다 대표는 맥킨지&컴퍼니에서 최초의 여성 시니어 파트너로 일했다. 맥킨지에서는 주로 금융기관들의 기업금융 전략을 자문했다. 베인&컴퍼니, 리먼 브라더스 등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도쿄에 있는 오차노미즈대학에서 소비자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캐스린 시 Kathryn Shih _ UBS 아시아태평양 대표

1987년에 UBS 금융그룹에 입사한 이후 자산관리, 투자은행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2002년에 아시아 자산관리부문 대표를 맡았고 2010년에는 UBS그룹 이사로 재직했다. 2016년에는 아시아 대표로 선임됐고 UBS그룹 보드 멤버에 올랐다. 같은 해 포브스 아시아에서 선정한 '아시아의 가장 파워풀한 비즈니스 우먼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프라이빗 बैं킹 부문에서 '베스트 리더'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을 졸업했으며 노스웨스턴 대학 고급 경영자 과정에서 수학했다. 2015년에는 홍콩에 있는 프라이빗 자산관리 협회로부터 개인자산관리 전문가로 공인받기도 했다.



크리스찬 만시니 Christian Mancini _ 세빌스 아시아태평양 CEO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세빌스의 아시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세빌스는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회사로 전 세계 700여 개 오피스를 통해 부동산 투자자문, 관리 및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세빌스 재팬 인베스트먼트 및 가치평가 부문을 신설해 최근까지 총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문 금액을 달성했다. 또 2012년 5월에는 세빌스 에셋 어드바이저리의 이사로 활동하며 총 3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2016년에 아시아 퍼시픽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세빌스에 합류하기 전에는 타케나가 코퍼레이션, RTKL 어소시에이츠, 니혼 GMAC 커머셜 모기지 등에서 근무했다.



라파엘 마르티네스 페레이라 Rafael Martínez Ferreira _ IE 교수

세계적 경영대학원 IE를 포함해 20여 년간 금융시장을 연구해온 전문가다. 주식, 채권, 대출 등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금융상품들의 위험과 수익을 집중 분석하는 것이 주된 연구 분야다. 특히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가장 효율적인 기업금융을 만드는 분야의 전문가다. '가장 좋은 사업은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처음에는 P&G에서 인공지능(AI)을 발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금융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맥킨지, 아마데우스 등에서 금융담당 컨설턴트로 일했다. 기업금융, 자본시장, 소비자금융과 위험관리 등이 주된 연구 분야다. 현재는 탄소 금융 분야 전문기업인 '헤라(Hera) W2R(Waste to Resource)'를 경영하고 있다. 인시아드에서 MBA 과정을 밟았고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대학인 UNED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아시아를 향하여

Seeking Ways to One Asi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등 고립주의, 보호주의 노선을 천명함에 따라 세계적인 리더십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반대로 자유시장 경제 수호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난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국제정치 질서뿐만 아니라 경제 질서에서도 중국의 역할과 비중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제18회 세계지식포럼은 정치, 외교, 경제 분야 최고 중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중국이 그려나갈 미래에 대한 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중국 기업의 부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 선진국 기업들이 기존 기득권에 사로잡혀 혁신에 소홀한 사이에 중국은 이제 혁신의 선도국으로 앞장서 나가고 있다. 부상하는 아시아 신흥국들의 중요성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2017년은 ASEAN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제18회 세계지식포럼에는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원 아시아'를 향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왕지쓰 Wang Jisi _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소장

1948년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났으며 베이징대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한 뒤 1983년부터 베이징대에서 강의를 해왔다. 옥스퍼드대-미시간대 방문학자, 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중국 공산당과 외교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중국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학자로 꼽힌다. 왕 소장은 수년 전 북한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유명한 발언을 했다. 하나는 핵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소장은 지난 2007년 중국의 국제전략에 대한 교과서적인 책으로 평가받는 <중국 학자들 세계를 보다>라는 8권을 책임 집필했다. 그는 184명의 중국 국제정치학자들이 펴낸 이 책을 책임 집필할 정도로 중국 내 영향력이 큰 학자로 꼽힌다.



자칭귀 Jia Qingguo _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

중국 내 대표적인 중·미 관계를 비롯한 중국 외교정책 전문가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1956년 중국 허난성에서 출생했다. 베이징 외국어학원에서 영어를 전공한 뒤 미국 버몬트대에서 정치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코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호주 시드니대 방문 교수 등을 지냈으며 1994년부터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2008년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상무위원(차관급)으로 선출돼 중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21세기의 중미외교>, <미실현의 화해: 냉전초기의 중·미관계> 등이 있다. 2011년 8월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방중했을 때 비공개로 만난 중국 외교전문가 5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츠푸린 Chi Fulin _ 중국개혁발전연구원장

츠푸린 원장은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부회장, 중국기업연합회 및 중국기업가협회 부회장, 하이난성 사회과학연합회 주석 등을 거쳐 현재 하이난(海南)에 위치한 중국개혁발전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츠푸린 원장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위원 자격으로 최근 5년 연속 발언대에서 썼을 정도로 중국 내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소득 분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 제안을 해왔다. 중국이 추진하는 전방위 개혁이 기득권 세력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츠푸린 원장은 과감한 돌파를 강조해왔다. 츠푸린 원장은 정부 부처 이익구조, 국유기업 이익구조, 군부 이익구조, 산업 이익구조, 지방정부 이익구조 등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개혁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쉬진홍 Xu Jinghong _ 칭화홀딩스 회장

2003년 칭화대학교 유관 기업들을 모두 통합해 설립된 칭화홀딩스는 각 산업 분야별로 생태계를 바꿀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2003년 설립 당시 자본이 25억 위안에 불과했던 칭화홀딩스는 2016년 기준 자산총액이 3,000억 위안(512억 2,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칭화홀딩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칭화유니' 등 14개 상장사의 대주주이다. 칭화홀딩스는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도 투자했다. 지난해 칭화홀딩스 소속 기업들의 매출은 138억 7,000만 달러에 달했다. 쉬진홍 칭화홀딩스 회장은 이런 기업들을 모두 총괄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회장이다. 쉬 회장은 칭화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칭화대 행정처장 등을 역임했다. 차이나브랜드는 2015년 쉬 회장을 중국의 10대 기업가로 선정했다.



라비 벨루어 Ravi Velloor _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The Straits Times) 부주필

라비 벨루어는 싱가포르 최대 영문 일간지이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 중 하나인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The Straits Times)의 남아시아 지국장을 거쳐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주필을 맡고 있다.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대규모 해외 특파원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유력지이다. 그는 블룸버그 뉴스, 타임지, AFP 통신사와 인도 UNI 통신사 등에서 여서 경력을 쌓은 저널리즘 베테랑이다. 또한 남아시아 주재 특파원 클럽과 인도클럽의 창립멤버다. 외교, 지정학 및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를 주로 다루며 2016년 4월 <인도의 부흥: 신선한 희망, 새로운 두려움(India Rising: Fresh Hope, New Fears)> 저서를 발간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집단지성의 확립

Collective Intelligence for New Life

삶의 질 개선. 인간 중심의 기술 진화. 이런 목표들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그 어떤 논의도 무의미해질 것이다. 특히 개방형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중요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현명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상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할까. 이제 마음을 조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심리학, 생물학 등 기존 학문의 논의는 점점 더 인간의 본질적 고민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지신경과학 등 인간의 뇌 자체를 어떻게 후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제18회 세계지식포럼은 바이오, 헬스케어, 환경 등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도전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통해 새로운 삶을 위한 집단지성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안 로버트슨 Ian Robertson _ <승자의 뇌> 저자

아일랜드의 인지신경과학자로 신경심리학 분야 국제적인 권위자다. 현재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글래스고대학을 졸업하고 런던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으로 석사학위를, 신경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로트먼연구소의 객원과학자이자 아일랜드 왕립아카데미 회원으로 그동안 250여 편의 과학 논문을 '네이처', '브레인' 등의 여러 과학 저널에 발표했다. 또 인지재활 분야의 교과서도 여러권 집필했다. 사람의 뇌가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주제를 놓고 폭넓은 집필 및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스트레스 테스트(The Stress Test)>, <승자의 뇌(The Winner Effect)>, <마음을 조각하다(Mind Sculpture)>, <상상하라 그대로 이루어진다(The Mind's Eye)>, <집중력을 잃지 마라(Stay Sharp)>가 있다.



서정진 Seo Jungjin _ 셀트리온 그룹 회장

셀러리맨으로 출발해 한국 바이오업계 대표기업인 셀트리온을 키운 기업인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라'라는 생물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기반으로 항암제, 관절염 치료제 등 각종 의약품 제조 판매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선두주자다. 그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기와 한국생산성본부, 대우자동차 등에서 셀러리맨으로 근무했다. 대우차 재직 시절에는 최연소 임원 기록도 세웠다. 1999년 대우차를 퇴사해 넥솔바이오텍을 설립한 후 2002년 미국 벡스젠에서 기술투자자, KT&G에서 자본투자자 받아 현재의 셀트리온그룹을 창업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은 '세상에 없던 시장을 내다본 것, 모든 것을 건 승부를 여러 차례 벌인 결과'라고 밝히기도 했다. 2009년에는 무역의날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2010년에는 언스트앤영 최우수 기업가상인 '라이징스타상'을 수상했다.



얀 보키요 Yann Boquillod _ 에어비주얼(AirVisual) 창업자

미세먼지 수치 측정 앱으로 알려진 에어비주얼(AirVisual)의 창업자이다. 에어비주얼은 대규모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사용해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한 사회적 기업이다. 2015년 빅 데이터를 활용해 작업했던 경험을 사용하여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을 위해 에어비주얼을 창업했다. 각국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데이터 외에 에어비주얼에서 만든 개인 공기질 측정기인 노드(Node)에서 집계한 데이터도 제공한다. PM2.5와 CO2를 모두 측정이 가능하다. 전 세계 대기 오염 모니터링 네트워크에 기여함으로써 대기 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지아장 Jia Jiang _ '100일 거절당하기 프로젝트' 기획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회사인 우주러닝(Wuju Learning)의 설립자이자 CEO이다. '100일간 거절당하기(100 Days of Rejection)'블로그를 통해서 거절의 공포를 발견하고 정복하기 위한 시행착오를 분석하고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거절당하기 연습>을 발간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회인 TED의 인기연사가 됐다. 그 자신도 100일간의 거절 프로젝트로 인해 스스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과 잘 거절하는 방법도 익혔다고 밝혔다. 미국 브리검영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듀크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린다 리우카스 Linda Liukas _ <헬로 루비> 저자

핀란드 헬싱키 출신의 프로그래머이자 스토리 텔러 및 일러스트레이터이다. 그의 책 시리즈 <헬로 루비>는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는 등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얻었다. 이 책은 코딩의 세계를 탐구하는 한 어린이의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10년 '레일스 걸스(Rails Girls)'운동을 조직해 지금까지 160개 도시에서 여성 약 1만 명에게 코딩을 가르쳤다. 뉴욕 프로그래밍 교육 회사인 코드카데미(Codecademy)에서 일하던 중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밍을 교육하는 최고의 플랫폼은 책이라는 생각으로 어린이 코딩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알토대학에서 비즈니스,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제품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다.



윌리엄 김 William Kim _ 올세인트스 CEO

영국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올세인트스의 CEO를 2012년부터 맡고 있다. 서울에서 자라 미국으로 이민 간 1.5세대로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회계법인을 거쳐 구찌(2001~2005), 버버리(2005~2012) 등 명품회사에서 일했다. 특히 버버리 디지털 임원을 담당하며 버버리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때의 성과로 올세인트스에 영입돼 경영위기 상황의 브랜드를 흑자 회사로 턴어라운드 시켰다. 올세인트스는 현재 전 세계 25개국에 25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매출은 약 3700억 원이다. 패션산업 전체가 불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에서 만나는 세계 최고 MBA

1. INSEAD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선정 세계 최고 MBA과정 평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은 매년 세계지식포럼에서 미니MBA 과정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크 스타바일, 마이클 자렛, 마리아 과달루페 교수 등이 생생한 경영비법을 전수합니다.



2. IE 비즈니스 스쿨

스페인 명문 비즈니스스쿨 IE스쿨은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경영 대학원입니다. 올해는 마일로 존스와 라파엘 마르티네스 페레이라 교수가 경영학의 새로운 트렌드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성공 비법을 짚어주는 강의를 선사합니다.



3. NYU STERN

뉴욕대 스타 경영대학원은 미국 최고의 경영 교육 대학원이자 연구센터 중 하나로, 경제와 금융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자랑합니다. 세계 비즈니스 중심지인 뉴욕의 역동성, 에너지는 물론 뛰어난 교수진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4. HEC Paris

유럽 최고의 경영대학원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파리의 공립경영대학원 HEC는 유니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유럽의 다른 학교들과는 차별된 리더십 교육으로 이론과 현장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Fortune Global 500대 기업의 CEO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5. 칭화대 경제관리학원

칭화대 MBA는 2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저명한 경영대학원 중 하나입니다. 최고경영자들의 경영이론과 체계, 훌륭한 비즈니스 리더가 되기 위한 기술 및 방법은 물론 올바른 가치와 윤리를 가르쳐 중국과 세계를 무대로 널리 활동할 미래의 리더들을 양성합니다.



6.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영대학원 중 하나로, 중국에 대한 전문지식과 국제적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 결정과 경제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인 만큼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서는 MBA와 EMBA 세션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7. 장강경영대학원 (CKGSB)

홍콩 최대 부호인 리카싱이 설립한 리카싱재단이 후원해 2002년 베이징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사립 경영대학원입니다. 하버드, 유펜, 스탠퍼드 등 세계 유수의 경영대에서 학위를 받은 교수진과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동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명문 MBA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요 교수가 참가해 성공하는 중국 기업의 비결을 전수합니다.

